

전중소설에 나타난 인간성 추구

- 부산을 배경으로 한 『新潮』 창간호 소재 단편을 대상으로 -

이 상 원*

차 례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 서론

전중소설이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휴전이 된 1953년 7월까지 발표된 소설을 말한다.¹⁾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상황에서 갑자기 시작된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수난 시대의 문학은 이전의 그것과 달리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문학 활동은 피란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전개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문인들은 주로 대구와 부산으로 피란하였고 일부는 연고지를 찾아 흩어졌다. 그리하여 문단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부 교수

1) 필자가 말하는 戰中小說을, 논자에 따라 전쟁기 소설, 전시소설이라고도 부른다.

라 필연적으로 재편²⁾되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 문단이 형성되었다.³⁾

그렇지만 너무나 큰 충격으로 갑자기 밀어닥친 전쟁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한 차원 높게 소설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우리 문학에서는 끊임없이 ‘원체힘’으로서 전쟁을 다루고 있다.

전중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실 추세를 따르면서 삶을 도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피란민의 삶과 의식을 다룬 작품도 많다.⁵⁾

-
- 2) 문단 재편과 피란 문단에 대해서는,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동남어문학회, 2007. 참조.
- 3) 從軍作家團 활동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1952년 4월에 창간한 『戰線文學』과, 부산에서 나온 『文藝』, 『新天地』, 『新潮』, 『文化世界』, 『自由世界』 등 잡지와, 신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韓國文人協會 편, 『解放文學 20年』, 정음사, 1971.과 權寧珉 편저, 『韓國現代文學史年表(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참조).
- 4) 중군작가단으로 활동한 작가들이 ‘作家義勇兵’처럼 활동함으로써 일각에서 ‘어용작가’ 또는 ‘완장 작가’로 불렸다는, 구상의 발언은 애국심을 강조했던 당시 문학의 일면을 잘 말해 준다. 具常, 『從軍作家團 二年』, 『戰線文學』, 1953. 5.
- 5) 조남현은 ‘전시소설의 갈래’를 논하면서 군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전쟁 통해 전략의 길을 걷게 된 여인의 경우를 다룬 소설, 후방 혹은 피난지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 등을 들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유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曹南鉉, 「韓國戰時小說 研究」, 『韓國現代小說의 解剖』, 문예출판사, 1993. 21-33 쪽). 김문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거론하였다. 첫째, 전쟁으로 인한 거처 잃음과 극도의 궁핍 문제를 다룬 소설, 둘째, 이산과 가정 파괴의 문제를 다룬 소설, 셋째, 비극적 상황 속에 굴절된 삶 혹은 뒤틀린 인간상을 그리고 있는 소설, 넷째, 전략해 가는 삶 및 먹고살기와 전도되어 가는 성윤리 의식을 다룬 소설이 그것이다(「한국전쟁기 소설에 나타난 피난민의 삶과 의식」, 『우리말글』 제16집, 우리말글학회, 1998, 295-330 쪽). 박신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圖生 의식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아 승전 의식을 제고하거나 후방적 삶의 단면들을 처절하게 그려놓은 작품들이 대중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韓國 戰時小說의 現實意識 研究」,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363-386 쪽). 부산에서 발간된 『文藝』와 『新天地』에 실린 작품을 주로 하여 피란지 전중소설의 경향과 특질을 고찰한 것도 있다. 전쟁이나 전투를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은 없었지만 전쟁의 충격과 참혹한 운명, 후방 피란

그러나 전중소설이 마냥 고난과 절망, 전락으로만 점철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거나, 그와 같은 선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성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전중소설이 '전쟁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된 후방적 삶의 이면상을 추적하는데 집중'하고, '인간적 삶의 처절성'⁶⁾만을 묘파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학이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지향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중소설에서도 절망에 휩싸인 현실을 넘어서서 삶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 정신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부산에서 발표된 소설 가운데서, 연구 대상 작품을 1951년 6월 1일에 간행된 『新潮』 창간호⁷⁾에 실린 단편에서 골랐다.⁸⁾ 『新潮』는 『文藝』, 『新天地』와 함께 피란 문단이 형성되어 활동한 당시의 작품과

살이의 고통을 담아낸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고, 특히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인간형의 창조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이상원, 「전중소설의 경향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제4집,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97-117 쪽).

- 6) 박신현, 위 논문, 386쪽. 김문수의 연구도 비슷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위 논문,
- 7) 『新潮』는 1951년 6월부터 7월까지 2호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新潮'라는 잡지 이름에서 은연중 전쟁의 충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지향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創刊辭'에서는, 문인들이 寂寞無比의 暗路에서 헤매고 있는 때에 문단의 부흥과 재건을 도모한다는 것과, 전란 중 대한 문학의 조류를 대변하고 공산 침략으로 폐허화한 현실을 문학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잡지를 '폐허 속에서 움트고 있는 作物'에 빗대었다. 『新潮』 창간호, 6 쪽.
- 8) 『新潮』 창간호에는 단편 열두 편이 실렸다. 작품은, 金光洲의 <表情>, 金末峰의 <合掌>, 崔泰應의 <봄비>, 尹金淑의 <물>, 朴榮濬의 <釜山>, 李璇求의 <銃>, 黃順元의 <목숨>, 孫素熙의 <바다 위에서>, 金東里的 <歸鄉壯丁>, 韓戊淑의 <金一等兵>, 朴淵禧의 <바다가 보이는 곳>, 金永壽의 <軍人택>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전중소설에서 흔하게 보이는, 여인의 타락이나 성도덕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경향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잡지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단편들은, 전쟁 중 후방에서 겪는 고통과 애환을 다룬다는 전중소설의 일반적 경향을 따면서도, 인간의 내면과 진실한 인간성, 인간에 대한 신뢰와 우정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 잡지 창간호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서도 배경이 당시 부산으로 설정된 것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부산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체험과 삶과 의식이 더욱 실감나고 진솔하게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金光洲의 <表情>, 崔泰應의 <봄비>, 尹金淑의 <물>, 朴榮濬의 <釜山>, 金東里的 <歸鄉吐丁> 등 다섯 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본론

1. 이웃에 대한 배려의 결핍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난, 그 충격을 겪으면서 생사를 넘나들며 피란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또한 피란살이라는 고달픔과 신산을 겪어야 했다. 피란지에서 생존 수단을 모색하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체험이 녹아 있는 작품은 매우 많다. 셋방살이의 설움이라든지 여성들의 전략은 전중소설에서 많이 다룬 제재⁹⁾이다.

9) 황순원의 『曲藝師』(『文藝』, 1952. 1)는 셋방살이의 어려움과 생존을 위한 고달픔을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일 것이다. 손소희의 『饗宴』(『新天地』, 1952. 1)에서는 대구 피란 시절 주인공과 갈등을 빚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여성이 찬밥을 짹짹 소리 내어 씹기도 한다. 여인의 전략과 매매춘을, 부산을 배경으로 하여 다룬 대

尹金淑이 쓴 <물>도, 피란살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었다. ‘초가집, 나무 판때기 집, 가마때기 집으로 오물오물 뒤덮힌 동리’, 피난민 마을이 소설의 배경인데,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겪은 일을 제재로 하였다. ‘정말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물이 그리운’ 상황에서, 어떤 집에서 제공하는 수통 물, 생명수를 두세 시간을 기다려서, 새치기와 다툼과 혼란을 겪으며 겨우 한동이 얻는 형편이 ‘무기 없는 전쟁’이라 할 만하다.

시꺼먼 흙벽이 채 마르지도 않은 방 하나를 월세 5만 원에 얻어서 이사 온 ‘정임’이는 첫날 저녁에 물을 얻지 못해서 세 식구가 끼니를 굶는 고초를 당한다. 붉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어느 집 대문으로 들어가서 물을 얻으려다가 여자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정임이는, 평소 이웃에게 물을 주지 않던 붉은 벽돌담 집에서 물을 얻어 온다. 그 부잣집 마누라가 아기를 얻으려고 불공도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친구를 찾아 부산진까지 다녀와서, 물 얻으러 간 정임에게 뜻하지 않은 작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밥을 지어 먹고 벽돌담 집으로 갔더니, 주인집 아주머니는 불공 드리러 가고 없는데, 똥똥보 주인 남자가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 정임이가 물동이 이는 것을 도와주던 똥똥보는, 물동이 이고 가는 정임이의 허리를 뒤에서 안고, ‘물동이 갖다 놓고 놀러 오라’며 수작을 건다. 똥똥보와 함께 뒤로 나동그라졌다가 일어난 정임이는, 물동이에 남아 있던 물을 똥똥보에게 끼얹어 버린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이는 무르팍 아래 상처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설움과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표적 작품으로는 박연희의 『氷花』(『文藝』, 1952. 6), 김송의 『裸體像』(『文藝』, 1953. 6), 곽하신의 『골목집』(『文藝』, 1953. 6), 김말봉의 『轉落의 記錄』(『新天地』, 1952. 5) 등 여러 편을 들 수 있다.

밤새도록 쿡쿡 쑤시고 아파서 잠 한숨 못 이루고누워있는 정임이 눈엔 자꾸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진다.

그것은 며칠전부터 물한동이를 얻기 위하여서 받아들여온 서름이 한꺼번에 북바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멀리 두고온 서울, 고스란이 내어 버리고 온 내집, 또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틀기만 하면 썩~소리를 질고 고 쏘다져 나오는 앞뜰의 수통물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때문이었다.¹⁰⁾

서울에 있는 집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피란민이 된 기막힌 현실에서, 이웃 남자에게 놀림 당했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항의하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물>은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피란살이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수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의에 환란을 당한 동족, 이웃이 된 피란민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대하거나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취급하려 하는, 냉대와 동물적 욕망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측은지심마저 빼앗아가 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야성을 드러내게 된 현실을 작자는 주목하고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측은지심마저 버린 인간에 대하여 도덕적 비판을 품고 있는 것이다.

2.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의 위기

앞에서 본 <물>이 현실적인 면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데 비하여,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시각을 깊게 하여, 인간에 대한 신의가 사라지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는 상황에 대하여 예리한 관찰과 비판을 보여주는 소설도 있다.

朴榮濬의 <釜山>과 金東里의 <歸鄉壯丁>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釜山>이 인간의 우정과 情理, 신의를 문제로 삼은 데 비해, <歸鄉壯丁>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다루었다.

10) 『新潮』, 창간호, 28쪽.

피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미를 상실하고 세속화해 가는 사람들의 내면적 품성을 잘 묘사한 작품이 바로 <釜山>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 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부산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사람들의 인정과 생활, 심리를 드러내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

서울을 두 번째로 탈환한 국군이,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할 즈음 진달래가 만발하던 어느 날, 시골 농가에서 피란 하고 있던 '오탈호'는 부산으로 떠난다. 그러나 '태호'가 만난 피란살이 중인 친구들은 대부분 실망과 우울을 안겨 준다.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떠나는 태호는 즐거움과 기쁨에 들떴다. 김해를 지날 때는 옛날에 사랑하던 'C'가 생각나기도 했다.

버스에서 내린 태호는 우선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으나 여관이 모두 만원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모인다는 M다방을 찾아갔다. 사람들 틈에서 아는 친구를 찾던 태호는 드디어 'K'를 발견했다. 옛날에 같은 신문사에도 있었고, 그 뒤 술친구로 다정하게 지낸 사이였다. K는 무척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했고 태호는 하룻밤을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K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서 있는 태호에게 '좀 앉지'라는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태도였다.

그때 '오 선생'하고 부르며 태호를 따라 나와 악수를 청하는, G회사 때 같이 일하던 '김'을 만났다. 김은 앞장서서 깨끗한 음식점으로 안내하여 값비싼 음식을 주문하려 했으나, 태호는 친절이 과분하다고 여겨 비빔밥 두 그릇을 시켰다. 김은, 태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여럿 만났으며, B다방에 그들이 모인다고 알려 주었다. 마카오 양복을 말쑥하게 입고, 고급 시계를 찬 김은, 태호와 가까운 박 선생이 상공부 xx국장이 되었다면서, 그 국장을 만나면 자기를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 태호는 자신에게 베푼 친절이 결국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김과 헤어진 태호는, B다방에 들어서서 'P'와 'S'를 만났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친했던 P와 S를 한꺼번에 만난 태호는 매우 기뻐했다. P와 S는 무슨 장사를 하는 모양이었다. 태호는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장사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았다. 그들은 태호에게 머무를 곳을 물어보기는 하면서도, 'W'에게 가 보라고 했다. W는, 마누라가 어떤 돈 있는 친구와 바람이 나서 헤어지고 혼자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W의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태호는 할 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 토성동에 사는 '최'를 찾아갔다. 최는 태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최의 마누라도 뜰 밖으로 달려 나오며 맞아 주었다. 태호가 웃으면서 하룻밤 재워 주기를 청했을 때, 최의 부부는, 불편해도 함께 자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 방에 일곱 명이 함께 누웠지만 태호는 마음이 편했다.

이러한 즐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태호는 M다방과 B다방¹¹⁾에서 친구 또는 알고 지냈던 네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M다방에서 만난 'K'와 '김', B다방에서 만난 'P'와 'S'는 태호를 모두 진정으로 반기지 않는다. 또 'W'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태호는 마침내, 주소를 알고 있었던 '최'를 찾아간다. 아이들 넷과 방한 칸에 살고 있는 부부는 태호를 반갑게 맞이했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앞서 만났던 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하룻밤이라도 함께 지내거나 다음 날 만나지는 약속마저 하지 않은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태호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했던 기대는 결과적으로 허망한 꿈이 되고 말았다. 여행 과정은, 기대의 무산과 함께 우정을 저버린 인간 들에 대한 환멸을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다.

그러나 가장 자녀도 많고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가 진정 따뜻하게 변

11) 당시 피란 문화인들은 다방에 많이 모였다. 밀다원, 금강, 에덴, 스타 등이 광복동과 남포동에 있었다고 한다. 김동리는 『現代文學』(1955. 4)에 <密茶苑時代>를 발표하여 다방에 모여 꿀벌처럼 왕왕거리는 문인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함없는 우정으로 맞아 주었을 때, 태호는 가까스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

태호는 다시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사방 여섯자 방이다. 거기에 어린애가 넷 최와 최의 마누라 도합 여섯명이 자기에도 좁은 방이다. 어떻게 일곱사람이 누울수가 있을까가 걱정이었다.

그러나 최는 어린애 들을 머리마테 뉘이고 나머지 둘은 아래위로 서로 발을 달게 눕혀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최의 부부와 태호가 잘수있도록 자리를 깔았다.

머리마테 누은 어린애의 발길이 태호의 머리를 찰 것 같았다. 그러나 태호는 마음 편했다.

어린애 발길에 코가 চে이어 코피가 나도 좋을것 같았다.¹²⁾

이처럼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우정과 신의마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한 친구의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한 것은, 곧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작가의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釜山>은 피란살이하는 개인에 대하여우정과 신의를 확인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당시의 혼란한 와중에서 공식적인 조직이 저지른 부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작품이 金東里의 <歸鄉壯丁>이다.

<歸鄉壯丁>은 오갈 데 없는 귀향 장정(제2 국민병)이 겪는 고초를 다루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제2 국민병'은 그 정식 명칭이 국민방위군이다.

국민방위군은 중공군의 참전과 전세의 재역전에 따른 위기에 직면하여 1950년 12월에 기존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로 이어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청년 단체를 대체하여 창설한 군사 조직이었다. 만 17세 이상 40

12) 『新潮』, 창간호, 35쪽.

세 미만의 장정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법적 조직으로서 각지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청년을 마구잡이로 징집하였다.

1950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방위군 설치 법안’에 따라 방위군 사령부는 청장년을 전국에서 모아 경남북 일대 51곳에 설정한 교육대로 도보 행군을 시켰다. 그런데 국민방위군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안은, 방위군이 죽음의 강행군을 거쳐 대부분 교육대에 정착한 뒤인 이듬해 1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방위군은 남하하는 도중에 동사자, 아사자, 낙오자가 속출했고 식량과 생필품을 현지에서 자체 조달하는 폐습에 젖게 되었다.¹³⁾

이러한 국민방위군에 징집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은 젊은이가 바로 <歸鄉壯丁>에 등장한다. 김해에 있는 제2 국민병 훈련소에서 석 달 동안 훈련을 마치고 ‘장정 대기소’에서 제대를 한 ‘의권’과 ‘상복’이가 그러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의권과 상복은 고향에서 얼굴은 서로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나, 훈련소에 들어와서 부쩍 정이 들었다. 게다가 의권이는 상복이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상복이가 천신만고로 구걸을 해서 음식과 약, 누더기를 구해옴으로써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훈련소를 나서면서 의견이 갈리면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 김해를 떠날 때 각기 쌀 두 되를 살 수 있는 돈 오천 원씩을 받았다. 이때, 추위와 굶주림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번 도와주었던 이 생원

13) 더욱이 고위 간부들은 당초 부족했던 예산마저도 상상을 초월하는 유용과 착복, 정치자금화 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뒤늦게 출발한 장정들은 예정된 교육대에서 인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하여 각지를 전전하면서 유리걸식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방위군도 추위와 기아에 돌림병이 겹쳐 사망자, 불구자가 속출하여 마침내 집단 탈출 양상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른바 이러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방위군은 창설 6개월 만에 해체되었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등 5명은 사형을 당했다. 陳德奎 외,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90, 415-418 쪽과,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345-346 쪽. 참조.

덥에 돈을 그대로 다 갖다 드리자는 의권의 말에 상복이는, 반대를 했다.

상복이가 볼 때, 의권이는 석 달 훈련 끝에 '건달같이 험프고 마치 도적놈같이 걸직걸직한 사람'이 되었다. 의권이는 남에게 의뢰하고 동정과 구호를 받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서 의권이는, 상복이를 '맹추처럼 웅졸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에든지 매달려서 좀 살려 주십사 하는 생각만 가졌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방위군에 몸담으면서 겪었던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체험은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혐오, 불신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부산에 들어오자, 상복이는 범일동에서부터 동회를 찾아다니며 두 사람의 가족 명부를 알아보기로 하고 의권이는 돈을 벌어오기로 하고 일단 헤어진다. 그러나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하루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어느 동회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곳에서 '사회부'나 '보건부'에 가면 쌀도 돈도 주고 광복, 약품도 제공하는 등 귀향 장정을 우대한다는 말을 듣는다. 상복은 '당국'이 보살펴 주리라고 믿어 온 것이 과연 허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의권은 심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튿날 아침 상복이 눈을 떴을 때는 의권이가 자신의 돈 5천 원을 가지고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정오 무렵 의권이가 영도다리를 건너 시청 앞 로터리로 올 때, 상복이가 시청 앞에 쓰러져 있었다. 어떤 사람이 상복이를 업고 사회부나 보건부로 가려고 할 때, 의권이가 나선다.

넋 잃은 사람 처럼 멍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의권이가 돌연히 뛰어 들어 노동자의 등에업힌 상복을 뺏어 저이 어깨에 메었다.

“비켜!”

의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사지가 축늘어진 상복을 어깨에 멘채 사회부로 가자던 곤색 양복 자리와 보건부로 가자는 회색 스포링과 상

고 머리에 누런 양복을 입은 노동자와 그리고 여자 남자 노인 아이, 그 많은 군중들을 겨눈질로 흘겨 가며 사회부도 보건부도 아닌 어느 골목으로 유유히 살아지고 말았다.¹⁴⁾

의권이는 이처럼 상복을 어깨에 맨 채 군중을 흘겨보며, 어느 골목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린다. 사회부나 보건부에 가서 도움 받는 것을 단연코 거부한 것이다.

이 소설을 보면, 국민방위군에 징집되어 갓은 고난을 겪은 뒤, 방위군 해산에 따라 흩어지게 된 귀향 장정이, 부산으로 피난 왔을지도 모르는 가족을 찾아와서 겪는 고난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훈련을 마치자 성격이 극단적으로 변화하여,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의권이는 건달처럼 행동하며 도덕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식으로 변화했다. 이에 비해서 상복이는 지나치게 위축되고 소심하며 남에게 의지하여 어지럽고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귀향 장정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인물의 성격 변화는 당시 국민방위군 자체에서 일어난, 상식을 초월하는 비리와 폐단 때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석 달 동안의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야기된 총체적으로 비인간적인 상황에 기인한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작자는 전쟁 중에 일어난 잘못된 정책과 비리를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두 인물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변모시키고 대립시켜, 사건을 전개해 나갔고, 마침내 결말에 이르러서는 의권이가 상복이의 목숨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국가와 사회에 저항의

14) 『新潮』, 창간호, 61쪽.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영준의 <釜山>과 김동리의 <歸鄕壯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위기를 보여주었다. 여행을 통한 만남이라는 형식과, 혼란과 비리에 저항하는 성격의 창조를 통하여 형상 화해 낸 것이다. <釜山>이 인간의 우정과 情理, 신의를 문제 삼은 데 비해, <歸鄕壯丁>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대한 예리한 비판 의식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쳐 가는 群像과 고양이의 시선

앞에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제기되는 선의와 배려, 情誼와 신뢰가 사라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는 것을 포착하여 소설화한 작품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피란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게 혹은 미쳐 가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金光洲의 <表情>을 살펴 보려 한다.

<表情>에는 ‘강아지의 모노로그’라고 부제가 붙어 있다. 소설의 화자는 순양종인 셰퍼드 강아지이다. 강아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강아지가 1인칭 관찰자로서, 특히 부산에 있는 어느 다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 즉 희망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 앞부분에 강아지의 내력이 독백 형식으로, 소개된다. 강아지가 태어난 것은 인민군이 석 달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 있다가 북쪽으로 막 물러갔을 무렵, ‘동쪽’이 대부분 개장국 건더기가 되어 최후를 마쳤던 살벌한 때였다. 어린 ‘나’는 무슨 ‘국장’이라는 사람의 짧은 소설 집에서 꿈속 같은 석 달을 지냈을 때, 1.4 후퇴를 당하였고, 피란민 열차에 실려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열흘도 못 되어 안주인이 어떤 짧은 놈팡이와 눈이 맞게 되어,

주인 내외가 대판으로 싸운 이튿날 이 다방 마담에게 팔려 오게 되었다. 마담은 부엌 구석에다 나를 처박아 두고 있기 때문에, 커피 냄새를 맡으며 문틈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표정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저 이들은, 현대인은, 대한민국백성은 머리가 돌지 않고는 견딜수 없다는듯이, 또 ‘커피’나 한잔마시면 인생이, 세상만사가 그길로 해결이 나 된다는것처럼, 하로종일 빈 찻잔을 드렸다 놓았다하면서, 하로종일 논두렁에서 우러대는 개고리떼 모양으로, 제가 하는소리가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악마구리 끌듯 떠드러 대는 것입니다.¹⁵⁾

강아지가 관찰한 인간들의 모습은 이처럼 다방에서 악마구리 꿇듯 떠들어대는 것이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아침 9시부터 밤까지 다방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소위 ‘문화인’이 많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소설가, 화가, 시인, 대학 교수, 출판업자, 연출가, 영화 감독이 그들이다. 또 마라톤이나 스포츠 선수를 하다가 유명한 ‘어깨’가 된 사나이, 남의 둘째 부인, 양갈보, 뚜쟁이, 무역업자, 군복을 걸치고 돌아다니는 정체 모를 사나이 등등이 드나든다고 한다.

강아지는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깊은 인상을 주는, 눈에 띄는 ‘표정’을 여덟 가지로 제시한다.

①아침 아홉 시 다방 문을 열기 전부터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는, 서 울에서도 이름깨나 있는 소설가.

②아침 열 시면 으레 나타나는 일선 기자. 또는 ‘돌았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모 일류 신문의 수석 기자. (이 수석 기자는 군복 앞가슴에 ‘중군 기자’라고 커다란 마크를 붙이고 있다.)

③저녁 때가 되면 꼭 나타나서 소곤소곤 밀회하는 젊은 남녀.(남자는

15) 『新潮』, 창간호, 10쪽.

유명 시인이고 여자는 영화 배우이다.)

④별명이 ‘떠난다는 사나이’.(제주도나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데 날씨가 흐려서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는 등 횡설수설한다.)

⑤끔직한 파이프를 물고 거만스런 걸음으로 나타나는 신사.(불란서 문학을 전공한 모 대학 교수)

⑥서울에서도 유명한 모 사업가의 부인.(요즘 부군이 부산에 작은집을 얻어 놓았다며 일주일에도 서너너덧 번씩 대구에서 내려와 부군을 찾아다님.)

⑦밤이 늦어 교통 금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방 문을 닫으려 해도 구석에서 껌만 씹고 있는 여인.(양갈보나 ‘밀가루’)

⑧다방 문을 막 닫으려 할 때 으레 술이 얼큰해져서 횡설수설하는 유행가 작사자.(일정한 주소도 없고, 언제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던 시인을 자처한다.)¹⁶⁾

이와 같은 특별히 눈에 띄는 몇 가지 ‘표정’의 주인공은 대부분 난리통에 정신이 약간씩 이상해져 버린 또는 이상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사람들의 걸모습과 행동과 언어는 들어서 알지만 왜 그렇게 정신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지는 못한다. 전쟁 때문에 망가진 삶과 정신을, 일개 강아지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잘난 백성들이 왜 남쪽으로 쫓겨 와서 궁상을 떨고 한숨으로 날을 보내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독백은, 잘난 인간 군상이 황당하고 피폐한 행동을 보이는데 대한 풍자의 의미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방을 드나드는 손님들만이 아니다. 강아지로서는 주인 마담과 그 남편까지도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다방 주인 마담이 이층 침실에서 젊은 성악가와 눈이 맞아 속삭이고 있다가, 중년 신사(남편)와 밤새도록 싸우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강아지가 하는 독백의 결론은 이러하다.

16) 『新潮』, 창간호, 10-12 쪽 참조.

갈팡질팡 들락날락하는 무수한 인간들의 표정을 쳐다보며 사노라면 정말 내 자신이 피곤해서 못견딜 지경입니다. 한사람도 머리속이 온전한 사람은 없는것 같습니다. 내고장, 내땅, 내집을 버리고 낯서른 남쪽 바닷가로 피난들을 오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다 머리가 약간 돌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¹⁷⁾

강아지는 ‘정말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조리 머리가 돌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방 부엌에 갇혀서 바깥세상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미칠 지경으로 답답하고,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강아지의 신세는, 고향에 있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좁은 다방을 들락거리면서 커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독자로 하여금 강아지와 피란민을 동시에 조감하게 함으로써 미칠 것 같은 피란민의 삶과 내면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고향을 등지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정체성과 인간적 품위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고발한다. 그러므로 강아지를 관찰자로 내세우는 독특한 수법으로 피란민의 생태와 정신을 리얼하게 묘사한 수작이라 평가할 만하다.

4. 전란을 통한 인격 성숙과 만남의 아름다움

전중소설이라고 해서 위에서 본 것처럼 고난과 우울, 파탄과 전략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피란살이를 하면서도 오히려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일 것이다. 崔泰應의 <봄비>에서는 고통의 초월과 함께 인간성 회복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봄비>는 분위기가 서정적이다. 참담한 피란 생활과 어울리지 않을

17) 『新潮』, 창간호, 9쪽.

듯싶은 이러한 분위기는, 아름다운 옛 추억을 살아나게 하는 반가운 사람과 우연히 만난다는 소설 내용과 잘 부합될 수 있다.

서두에서, 주인공 '동규'가 하루에 한 번씩 송도에서 영도까지 가고 온다는 일과를 제시하면서, 시칭 앞을 돌아 영도다리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리 난간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양쪽 부두에 늘어선 여러 선박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온다.

차츰 떠오르는 향수(鄉愁)…….

처음 부산에 와서는, 우선 바다가 있는 것이 적지 않은 위안거리였다. 십리나 뿔뿔한 길이었고, 바닥이 거친데다가, 절반이 진창인, 그런 길이었던만 나갈때는, 오른쪽으로 도라올 때는, 왼편으로 해변을 끼고 도는 맛에, 지루한줄을 몰랐고, 영도 다리 또한, 한토막이 슬몃슬몃, 끌려 올라갔다가, 그루로 내려와 다시 이어지는 모양이, 심심치 않아서 일부러 한참씩, 기다려 보기도 했었다.¹⁸⁾

이러한 서정적 분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역경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원래, 고향이 바닷가인 동규에게 부산의 바다는 위안을 느끼게 해 주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되돌아보게 한다.¹⁹⁾

이 영도다리 앞에서 동규는 우연히 '연이'라는 한 여인을 만난다. 연이는 서쪽 해안에 있는 동규의 고향에서 교편을 잡다가 15년 전에 고향에서 동규와 작별을 했고, 9년 전에 충청도 어느 지방 소학교 교사로 취직이 되어 떠나면서 서울에서 언뜻 동규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재 각기 가정이 있다.

연이와 동규는, 동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갔다가, 연이가 사는 집으

18) 『新潮』, 창간호, 19쪽.

19) 바다는 '자기 심성을 추적하는 내면의 거울'이나 '영혼 응시'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바이런과 보들레르의 시편에서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다. 아지자 외 지음,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9. 156쪽 참조.

로 같이 갔다. 아담한 적산 가옥에 네 식구가 살기에는 아주 여유로웠다. 남편은 대구에 가고 없었고, 객실에서 ‘그린 티(파아란 차)’ 석 잔을 마시고, 낮익은 미소를 지었다.

신경통 때문에 걸어 다니기에 약간 불편을 느끼는 동규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6.25가 나자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괴로움과 정신적인 답답함을 겪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피란살이를 하기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그것을 짐작하고 이해할 뿐 공연히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연이를 우연히 만났으면서도, 꺼내면 한이 없을 이야기를 내놓지 않는다. 그대로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사연이 교환되는 듯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동규는 내면적 안정감을 찾고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때마침 비가 오기 시작하자 동규는 몸을 일으켰다. 지난날 함께 오솔길을 거닐던 아름다운 추억이 잠깐 떠올랐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고, 배웅 인사를 받으며 문을 나선다. 만남을 ‘축복’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봄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재생과 정화와 희망²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난에 연유하는 내면적 상처를 씻고 그것을 초월하여, 새로운 인간성을 획득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라는 개방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은, 피란민 마을이나 다방과 같은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공간과 대비된다. 주인공의 의식도 과거와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바다와 추억이 불러 일으키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은, 인간의 내면적 성숙과 도덕성,

20) ‘봄비’에는 ‘봄’과 ‘비’의 상징적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빗물 속에서 얼룩진 인간성을 씻어 주는 구원의 힘을 발견하기도 한다. 아지자 외 지음, 위 책, 153쪽 참조.

존엄성을 회복하고 고양하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봄비>는 피란의 땅 부산에서 드물지 않게 있었을 법한, 뜻하지 않을 만남을 제재로 하면서도 세월의 흐름과 전란으로 인한 곡절 속에서 변하지 않은 고상한 품격과 내면적 성숙을 추구했다. 서정적인 배경과 품격 있는 성격을 설정함으로써 고상한 인간적 품위를 지향한 것은 전중소설에서 드물게 보는 새로운 경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전중소설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피란살이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반성 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배경으로 한 단편 몇 편을 고찰한 결과, 인간성의 확인과 탐구라는 주제의 보편성을 확인하였다. 바람직한 인간성에 대한 희구가 당시 전중, 피란 상황에서도 분명히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윤금숙의 <물>은 피란살이에서 식수난 때문에 겪는 고통과 서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그려 내었다. 동시에 피란 온 불쌍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간 심성과 행동을 지적하려 했다.

박영준의 <釜山>과 김동리의 <歸鄕壯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의 위기라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釜山>은, 부산에 피란 와 있을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주인공이, 사라져 가는 인정과 신의에 우울을 느끼고 후회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찾아간 친구에게서 따뜻한 인간미와 우정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여행과 만남이라는 서사 구조가 인물의 심리와 의식을 붙잡아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歸郷壯丁>은 국민방위군의 폐해와 실패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전중소설에서 현실 비판 소설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국민방위군이 되었다가 극단적 성격으로 변모한 성격을 창조하고, 심리적 갈등을 형성시키면서 행동을 전개한 점이 뛰어났다. 결말에서 주인공이 저항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광주의 <表情>은 '나'로 설정된 강아지의 관찰과 독백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다방을 드나드는 인간 群像의 생태를 파악하고 묘사하였다. 피란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미쳐 가는 모습을, 다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역시 견디기 어려워하는 고양이와 눈을 통해서 포착한 점이 훌륭하다.

최태응의 <봄비>는 항구 도시가 풍기는 서정성을 활용하면서, 과거에 좋아했던 여인을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우울과 절망, 생존 문제에 시달리는 다른 소설의 인물과는 달리, 고난 속에서 감상에 빠지지 않고 성숙하는 성격을 담담하게 제시하여 인간성 회복을 추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설들은 제재와 주제, 구성 등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작품 수준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당대 현실과 피란살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심성과 인간성을 추구하고 정체성을 획득하는 새로운 성격을 모색한 것은 전중소설의 한 양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을 전중소설의 주요 경향의 하나로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성 추구 양상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중소설, 전쟁기 소설, 전시소설, 인간성, 피란살이, 부산, 『新潮』

참고문헌

- 『新潮』, 창간호, 신조사, 1951.
- 金光洲, <表情>
- 崔泰應, <봄비>
- 尹金淑, <물>
- 朴榮濬, <釜山>
- 金東里, <歸鄉壯丁>
- 郭鍾元, 「六·二五動亂 以後의 作壇概觀」, 『新天地』, 1953. 5.
- 具常, 「從軍作家團 二年」, 『戰線文學』, 1953. 5.
- 권영민 외, 『한국현대작가연구』,文學思想社, 1991.
- 權寧珉 편저, 『韓國現代文學史年表(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동인 외, 『韓國文壇裏面史』, 깊은샘, 1983.
- 김문수, 「한국전시소설연구의 방향과 과제」, 『대구어문론총』 제 12집, 우리말글학회, 1993, 301-312쪽.
- 김문수, 「한국전쟁기 소설에 나타난 피난민의 삶과 의식」, 『우리말글』 제16집, 우리말글학회, 1998, 295-330쪽.
-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 朴信憲, 「韓國 戰時小說의 現實意識 研究」,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363-386쪽.
-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 이상원, 「전중소설의 경향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제4집,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97-117쪽.
-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동남어문학회, 2007, 173-203쪽.
- 曹南鉉, 「韓國戰時小說 研究」, 『韓國現代小說의 解剖』. 문예출판사, 1993.

陳德奎 외,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90.

韓國文人協會 편. 『解放文學 20年』, 정음사, 1971.

아지자 외 지음,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9.

<Abstract>

The Pursuit of Humanities in Novels during Korean War

- In the view point of short novels having the
background in Busan published in the magazine *New
Stream*(『新潮』) 1st. -

Lee, Sang-Won

This paper deals with short novels having the background in Busan out of the magazine *New Stream*(『新潮』) 1st published in Busan. I studied refugee life and pursuit of desirable humanities from these novels. They are excellent in theme, matters, structure.

These novels are as follows. ① 《*Water*(물)》 which shows difficult of getting drinking water. ② 《*Busan*(釜山)》 which sketches unchangeable fidelity of man well. ③ 《*The strong young man coming home*(歸鄉壯丁)》 which shows realistic and critical consciousness. ④ 《*Facial expression*(表情)》 which shows the refugees, especially the mind of culture man going to mad. ⑤ 《*A Spring rain*(봄비)》 which shows meeting an acquainted woman by chance.

《*Water*》 authored by Yoon Keum Suk(尹金淑) criticized unfeeling mind and behavior to refugees.

《*Busan*》 authored by Park Yeong Jun(朴榮濬) describes the protagonist who comes to Busan to meet his loving friends and confronts the vanishing humanity and fidelity of human and gets the

pain, but at last has comfort from friend whom he meets last. Here the form of visiting to and from the tea house to meet his friends corresponding to the structure of travel is contributed to the search for the psychology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dramatic personae.

《*The strong young man coming home*》 authored by Kim Dong Lee(金東里) is realistic and critical novel rare to see in during-war-novels. This novel is creating the changing character of protagonist who is changing to the extremist through the event of National Defense Army(國民防衛軍 事件).

《*Facial expression*》 authored by Kim Koang Joo(金光洲) describes the observation on a doggie set up as me. Here the author describes and satirizes the a large group of people visiting to and from the tea house through the form of monologue. And Kim is excellent in describing the man going to mad during refugee life.

《*A Spring rain*》 is a story of coming across a woman in Busan. It pursued growing character and humanities in distress. So this work is different from other novels that I considered in this essay.

Key Words : during-war-novels, humanities, *New Stream*(『新潮』), refugee life, Busan